

광주 북구 건국동 '지산 딸기 작목반' 찾아가 보니

## 친환경 '빛찬들 金 딸기'로 100농가 한철 25억 소득



### 전량 가락동 도매시장 출하…위기의 농촌 '희망'

다른 상품보다 1kg당 한 상자에 2천~3천원 비싼 1만원에 팔려 '귀하신 봄' 대접을 받고 있다.

어린이 주먹만한 씨알도 씨알이지만, 당도가 높고 단단한 과육이 수도권 소비자들을 반하게 했다. 특히 종자를 심고 수확하기까지 친환경농을 통한 생산과정도 신뢰를 갖게 했다.

지산딸기의 명성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7년 한명, 두명 딸기농사를 해오던 건국동 사람들은 지난 95년 작목회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친환경농에 뛰어들었다.

회원들이 18㏊, 248㏊의 시설하우스에서 지난해 말부터 오는 5월 하순까지 겉어울릴 '빛찬들 지산딸기'는 600t에 달한다. 200평 하우스 1동당 1천만원, 가구당 2천여만원을 훌쩍 넘어서선다.

지산딸기는 제철을 맞아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전량 출하된다.

이용하거나 인체에 무해한 유황증기를 들이는 등 첨단기법도 큰 효과를 거뒀다.

김관옥 작목회장은 "해마다 목초액과 미생물제를 뿌려 땅심을 높이는 한편 딸기의 당도를 높였다"면서 "또 과실은 비대해지지만 저장성이 약화되고 속이 비는 현상을 가져오는 흐름을 처리를 완전히 배제했다"고 말했다.

북광주농협(조합장 표범식)의 지원도 한몫 거렸다. 매년 영농기술 교육, 출하처 중도매인 유통세미나를 개최해 고급딸기 생산과 판로개척에 도움을 줬다. 또 지난해에만 목초액·미생물제 4천만원, 천적 2천500만원 등 영농자재를 무이자로 공급하고 생산왕 시상, 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사기를 북돋기도 했다.

김 회장은 "유통기간을 충분히 늘리기 위한 대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확충이 시급한 당면과제"라며 "현재 저농약 인증에 머물고 있는 영농수준을 조만간 무농약 인증으



지산딸기작목회원들이 하우스에서 '빛찬들 지산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이 친환경 딸기는 다른 제품보다 1kg에 2천~3천원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로, 나아가 유기농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딸기 품질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건설기계 공제조합 8월 출범

### 굴삭기 등 사고 손해배상

굴삭기나 덤프트럭 등 각종 건설기계의 사고를 보상해 주는 건설기계공제조합이 오는 8월 출범한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요청한 건설기계공제조합 설립이 최근 허가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가입 대상인 9만9천대 가운데 55%(5만4천대) 이상이 가입하는 8월에 사업을 개시한다.

공제조합 가입 대상은 현재 등록된 건설기계 33만2천대 중 20만1천대(60.5%)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굴삭기, 덤프트럭, 기중

기, 미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살포기 등 6종 9만9천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나머지 지게차를 비롯한 20종, 10만2천대는 임의가입 대상이다.

가입자는 기계 1대당 가입금 10만원을 내 뒤 매년 보험료를 내면 된다. 보험료는 현재 손해보험사에 가입할 때 내는 보험료의 85% 수준에서 책정된다.

공제조합은 손해배상보상외에 건설기계에 대한 위치추적서비스, 긴급 지원체계 구축, 도난 기계에 대한 추적, 조합원의 재산손실 예방활동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SOC시설공사 편법보상 많다

### 과수나무 심고 海女 위장 등록까지

### 보상비, 땅값 상승률보다 4.7배 뛰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이 토지나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과수나무를 심거나 해녀로 위장 등록을 하는 등의 편법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덕복 국토도시연구원 연구개발처장은 20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리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토론회에 앞서 '급등하는 보상비,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주제발표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

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SOC건설에 따른 수용토지 보상단가가 2001년 4만7천50원에서 2005년에는 11만 300원으로 올라갔다"면서 "최근 5년 간 보상단가 상승률도 연평균 18.6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 3.95%의 4.7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보상단가가 올라가면 SOC의 확충을 위한 토지 취득에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사업계획 결정 후 보상완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도 보상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결정후 확정까지 2~3년간의 기간이 걸린다"면서 "이 기간에 나무를 심거나 장고를 설치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상비용도 증가하는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설계획이 확정되자 특정마을의 해녀가 50명에서 232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남자 해녀는 1명에서 66명으로 급증한 일도 있다"면서 "이는 어업권에 대한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해녀로 위장등록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직장인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 "점심형 인간 되고 싶다"

### 실제론 휴식 원해

직장인 2명 중 1명은 '점심형 인간'이 되고 싶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과 온라인 리서치 기관 폴리에버(www.pollever.com)가 공동으로 직장인 2천189명을 대상으로 '귀하는 점심형 인간이 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고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3.4%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점심형 인간'이 되고 싶은 이유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3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서'(22.7%),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18.6%), '건강을

위해서'(12.1%)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실제 점심시간 활용 내용(복수응답)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54%가 '휴식을 취한다'고 답한 반면 '운동(5.6%)', '외국어 등 공부(2%)', '동영상 강의'(1.1%), '학원 수강(0.4%)'은 소수에 불과해 마음만큼 실천이 따라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터넷'(35.5%), '동료와의 대화'(35%), '낮잠'(19.2%) 등을 한다고 답했다.

'점심형 인간'에 대해 직장인의 34.4%가 '일부 기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다'라고 응답하고 26.8%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2명 중 1명꼴 "난 불행해"

직장인 2명 중 1명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일과 직장생활로 꼽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와 직장인 포털 비즈몬(www.bizmon.com)이 전국 남녀 직장인 9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 행복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48.2%인데 비해 행복하다고 생각한 직장인은 9.8%로 10명 중 1명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불행하다고 답한 직장인

비율이 지난해 2005년 남녀 직장인 1천3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40.2%였던 것이 2년 사이에 48.2%로 8%Point 증가했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는 '일과 직장생활'이 3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력' 32.5%, '두능력한 인간관계' 11.2%, '내 집 마련' 8.9% 등의 순이었다.

그 중 '경제력'과 '내 집 마련'이 작년 21.2%, 2.0%에서 각각 11.3%, 6.9% Point 상승해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2월 중 광주 수출 8억 200만달러

### 1월보다 12.6% 줄어

고(6천600만달러) 등이다.

전남의 수출은 석유제제품(3억5천만달러), 유기 및 무기화합물(2억6천500만달러), 철강판(1억8천만달러), 인조플라스틱 및 등 제품(2천100만달러) 등이 주도했다.

광주·전남의 수입은 각각 4억300만달러, 19억9천900만달러로 전달에 비해 3.6%, 6.1% 감소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생명기온, 건강한데 자신의 세포를 보관하겠다.  
생명기온 주요 질병 발병시 치료에 사용하는 111 맞춤치료의 시작입니다.

주제발표

한국은행 기관포럼 개최주제

2007년 3월 21일 수요일

